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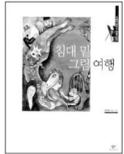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엄마의 품 반지=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법과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의 이야기 여덟 편을 담았다.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준희, 아버지의 실직으로 웃음이 사라진 지수 등 성장통을 앓으면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이세움·8천500원>



▲어린이를 위한 남극의 역사=지구의 남쪽 끝에 위치한 한반도 60배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땅 남극에 대한 이야기다. 혹독한 날씨 탓에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얼음 땅 남극에서 일어난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남극의 과학 등을 전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생생한 사진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일출북·1만2천700원>



▲침대 밑 그림 여행='난 분홍색이 싫어'등을 선보여온 동화작가 권재원씨의 최신작. 어린이에게 미술의 세계를 펼쳐 보여준다. 개구쟁이 그림자가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가 마르크 사갈과 빈센트 반 고흐, 앙리 마티스 등의 그림과 그 속의 주인공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설정이다. <창비·1만원>



▲난 겁쟁이가 아니야=겁쟁이라고 놀림 받는 주인공 샤오페이가 '무모한 용기' 대신 '참된 용기'를 선택하는 과정을 그린 동화. 6, 7세 어린이들에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나쁜 일이며, 정직한 마음이 왜 좋은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섬세한 심리 묘사와 표현력 넘치는 그림도 볼거리다. <해와나무·8천원>



▲고려역사 속 숨은 영웅들=고려청자처럼 은은한 빛을 발하는 6명의 진정한 영웅과 고려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이극, 문종, 김유홍, 서희, 정천익, 최무선 등 인물들의 지혜와 끈기, 용기, 리더십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고려 역사를 배울 수 있게 했다. <뜨인돌어린이·9천500원>



▲원숭이 오누이=나이 어린 오누이 사이에 쉽게 생길 수 있는 갈등과 화해를 원숭이 오누이를 통해 유쾌하게 표현했다. 언제나 오빠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싶은 동생과 그런 동생이 귀찮은 오빠가 투닥투닥 다투다가 화해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렸다. <한림출판사·1만원>



▲할머니, 천사들이 왔나요?=할머니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천사가 찾아오는 모습'으로 표현한 그림책.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해 준다. 그것은 사랑하는 소녀의 내면으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고,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길이다. 늙는다는 것이 아름다운 과정을 일깨우는 책이다. <글담어린이·9천원>

▲도깨비의 비밀=이 세상에 여자 도깨비가 있을까요? 도깨비 박사로 불리는 김중대교수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듯 알기 쉽게 도깨비의 비밀을 알려준다. 각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 이야기를 모아 특징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풀어냈다. <상·1만원>

장애인학교 성폭력 '진실싸움'

도가니
공지영 지음



"진실은 결코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습니다!" 소설가 공지영(46·사진)은 스텝스벌 끌어오른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특유의 거침없는 문장으로 세상에 또 '한 방' 먹인다. 소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들과 맞대결을 벌여 온 작가 공지영씨가 장편소설 '도가니'를 펴냈다.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포털 '다음'에 5개월여 연재하며 1천100만회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한 화제작이다. '도가니'는 2005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광주의 모 장애인학교에서 자행된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작가의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가상의 도시 무진. 무진은 김승옥의 단편소설 '무진기행'에 등장하는 도시로 배경이 같은 만큼 실제 소설의 처음과 끝의 설정은 '무진기행'과 비슷하다. 사업에 실패해 무진으로 내려온 주인공 강인호는 지방 유지가 운영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자재학원에 부임하는데 첫날부터 반 아이의 죽음과 맞닥뜨린다. 안개처럼 자욱한 불안감의 정체가 서서히 밝혀진다. 소설의 초반부는 자재학교에서 벌어진 야만적인 사건의 진상이 숨겨져 풀려진다. 학생들에게 가해진 교장과 교사들의 끔찍한 성폭

행과 성추행, 구타가 드러나고 급기야 가해자는 구속돼 법정에 선다. 그러나 혈연·지연·학연으로 묶인 상류층의 끈끈한 '침묵의 카르텔'은 이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 오히려 강인호를 전교 조 교사 경력을 문제 삼아 '좌파 교사'로 몰아세우고, 그의 과거를 들춰내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린다. 결국 교장과 행정실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교사만이 6개월 형을 선고받는다.

작가는 소설을 쓰기 위해 충분한 자료 조사는 물론 광주 등 관련 지역을 10번 이상 방문해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만났다고 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든 권력은 필히 부패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운동'은 사회와 법제의 어두운 면을 알고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설의 결말은 권선징악이 아니다. 강인호는 마지막에 싸움을 포기하고 가족과의 안전한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도망치듯 무진을 빠져나온다.

공씨는 "마지막 순간 투쟁 현장에서 도망치는 주인공 강인호는 예전 같으면 배신자로 그려졌지만 이번 소설에서는 끌어안았다"며 "요즘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항이 된다"고 밝혔다.

소설의 제목 '도가니'는 작가가 대학시절 감명 깊게 봤던 아서 밀러의 연극 '크루서블'(The Crucible)에서 착상한 것이라고 한다.

사형제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우리 사회의 폐부를 드러내는 소설을 써오고 있는 공씨는 차기작으로 박종철 사망 사건을 사회적 문제로 만드는 데 기록제가 됐던 법의학자 황석준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창비·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40년 베일 '녹색노트'의 비밀

체 게바라의 흠뻑한 배낭
구광렬 지음



'혁명의 아이콘' 체 게바라는 1967년 10월 9일 세상을 떠났다. 사망 당시 그가 메고 다닌 배낭 속에는 두 권의 비망록과 녹색 노트 한권이 들어 있었다. 비망록은 훗날 '체 게바라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녹색노트'는 40년간 베일에 싸여 있었다. 멕시코 국립대학교에서 중남미 문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멕시코에서 시인으로 활동중인 구광렬씨가 펴낸 '체 게바라의 흠뻑한 배낭'은 녹색 스프링 노트 속 69편의 시를 통해 체 게바라의 마지막 행적을 좇은 책이다. 혁명의 소용돌이, 생과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체가 필사(筆寫)한 시의 주인공은 파블로 네루다, 세사르 바예호, 니콜라스 기엔, 레온 필리베 등을 통해 체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냈다. 그밖에 책에는 아직도 많은 논란을 담고 있는 체의 사망 당시 증인들의 인터뷰도 실려 있다. <실천문학사·1만2천900원> /김대성기자 mekim@kwangju.co.kr

왕릉에 얽힌 역사적 사실

조선왕릉 1, 2...
이우상 지음



조선왕릉 40기(북한 소재 2기 제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를 축하하듯 하듯 소설가 이우상씨가 조선왕릉 찾아가며 답사기 형식으로 쓴 '조선왕릉 1, 2-잠들지 못하는 역사'를 펴냈다. 조선왕조 518년 동안 27대 역대 왕과 왕비, 추존 왕과 왕비가 있다. 이들의 무덤을 능(陵)이라 한다. 조선 왕릉은 현재 42기가 있다. 원(園)은 왕의 사친(私親), 왕세자와 그비의 무덤으로 13기가 있다. 묘(墓)는 대군·공주(왕의 적녀)·옹주(왕의 사녀)·후궁·귀인 등의 무덤으로 64기가 있다. 제10대 연산군, 제15대 광해군의 무덤은 능이 아니라 묘로 불린다. '잠들지 못하는 역사'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조선왕릉의 위치,릉의 형식, 또 그에 얽힌 역사적 사실을 지도와 함께 상세하게 풀어쓰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산성' '한국의 옛다리' 등에 관심을 가져온 사진작가 최진연씨의 사진은 마치 현장에 있는 듯 한 기분을 들게 한다. 마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축하해 문화재청은 오는 12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에 산재해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고 하니 답사여행의 길동무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다림미디어·각권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화감독 6인과의 인터뷰

... 그 영화의 비밀
이동진 지음



영화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평론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동진씨가 유명 감독과의 대화록 '이동진의 부메랑 인터뷰-그 영화의 비밀'을 펴냈다. 그가 만난 감독은 모두 6명이다. '마더'의 봉준호, '해변의 여인'의 홍상수, '다짜마와 리'의 류승완, '쌍화점'의 유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임순례, '가족의 탄생'의 김태웅 감독은 이제와 만나 10여시간 이상씩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인터뷰집이 빛을 발하는 건 독특한 형식에 있다. 저자는 감독들의 작품을 꼼꼼히 보고 난 후 극중 인물들의 말이나 내레이션에서 힌트를 얻어 감독에게 질문을 던졌다. 감독이 영화 속 등장인물과 상황을 통해 관객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시 '부메랑'으로 감독에게 던진 것이다. 예를 들면 저자는 인터뷰중 유하 감독의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에서 여주인공 혜진이 영혼가 음료를 마시다가 뜬금없이 '황지우가 누구예요?'라고 묻는 대화를 언급한다. 그리고 갈치레에만 몰두할 뿐 문화적으로 무지한 인물들에 대한 조롱에 섞인 영화적 장치에 대해 유하 감독에게 질문을 던진다. 756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에 인터뷰가 꼼꼼히 담겼고 책 말미에는 씨네21 김혜리 기자와 저자의 인터뷰도 실었다. <위즈덤하우스·2만8천원> /김대성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심일부동산
☎ (41)223-1140, 5210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건내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T: 383-5221 H: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비밀매매, 무주택
• 토지600평 건물1,350평(매가78억)
보종금37억/월세3,000만원 용지12억
• 토지600평 건물1,500평(매가85억)
보종금7억/월세6,000만원(매가85억)
• 토지690평 건물750평(매가100억)
보종금40억/월세2,000만원 용지12억
▶토지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회사사옥 및 병원, 학원부지 등)
• 834.5㎡(250평)-매가 1,300만원
(풀럼비스 구상과 매가박스 중전사커라커도)
• 833㎡(220평)-매가 1,200만원
(비런세호빌주원 식당 유류업소(소매))
• 611㎡(185평)-매가 650만원
(상무구리동명원주원)
▶키오스크
• (총가)73,000㎡(22만2천평)
매가 100만원(동상위)가게부차로 총돈곳
▶호텔/도매
• 상무지구 4층35개 객실(매가28억)
(2층유류주점 보종금 3,000만/월450만원)
현금 45억 무주택
월수 1억 가능한 도매 및 호텔업종상업
맞춤주변 빌딩이다.
원하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확한 물건 판매 드렸습니다.
아무 때든 화주하십시오.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 매물 중개 전문)
공시지가2억매매가1억2천만원
▶상업지역 130P 삼각등
분양가8억 아파트1300세대상가매매가2억5천
▶35m도로 접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적합
공시지가+건물과포7억매매가4억2천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
상업지역 땅약95p공시지가3억5천매매가2억4천
▶30m 도로 접
▶장정가3억8천매매가2억
▶장성 대 270p 건 180p
▶1층 점포 6칸 별도 주택 2층
▶2층 사무실
32억월당금매
▶대 200p 건 450p
▶보 8억월 월2350만원 용 13억포함
▶장정가45억매매가24억5천
▶빌딩급매대지500p건평1000p지하1층,
지상5층전체공실
▶환승유류소공매
▶대 600p 세차시설 카센터 주유기 12대
▶대 12억 용지 6억포함
▶환승, 필리, 요양원, 필장부지
▶9500p 현재 황트방 참고관리실
▶주택조경수 식재 막 4억5천
▶59억 빌딩 대 1000㎡ 건 5500㎡ 보종금 20억
월세 4천 용지 15억 포함
▶장성 임 아사복장, 필장 100000p 4억7천
공시지가+건물과포 15억
대 300p 건 350p 매매 11억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신선설팀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합 수완지구 건축상담
▶청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월당 470만)
200평 22억(월당 1100만)
▶수완역지개발지구
이주지역지
협의강도인택지
생태대역지
▶신창역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2층 122평 80평
복구관촌동 850평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 120억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월류공정부지 2900 2600 4900평
수완동 4차선길 1200평 1800평
복구관촌동 850평
▶전용가능한금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가6차선길
생산녹지 : 2800평-평동관단간단 녹지길
▶우방일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측사들)
2중주거지역 건권처분
담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3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향촌동 260평
2중주거지역 건권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을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종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종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 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청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도 오십시오

경매전문회사
HK (주)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 전화 ☎ 062)228-6600
H.P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인찰가 제시
▶제1,2금용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채를 경락
▶잔금 대출상선(인찰가의 50%~80%)
▶소유주, 입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 해드립니다.